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풍성한
은혜와 소망을 전 세계에 전합니다

“지역 사회와 교회의 회복을 위해 함께 와서 잔해물을
주우며, 주님 안의 소망을 전했던 모든 이들의 끈기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레슬리 카수파난-델라 크루즈 목사,
필리핀 카마카일 연합감리교회 행정담당, 2019년 4월 충격적 지진 이후.

“특별히 도움이 절실했던 시기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 연합감리교회 공동체나 구호위원회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역 사람들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 체이스 아이언 예이스,
남다코다 오글라라 수 부족(Oglala Sioux) 홍보 담당자,
2019년 3월 겨울 폭풍과 홍수가 파인 리지 보호구를 강타한 직후.

“파괴된 현장의 사진들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할 수도 있지만,
모든 사진은 사실 누군가의 삶, 잃어버린 추억, 잃어버린
집, 때로는 잃어버린 직장을 나타냅니다. 재난당한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과 같은 작은 행동들이 때로는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 디 스티클리 마이너 목사, 서오하이오 연회 재난 대책 담당자,
2019년 10개의 토네이도와 강한 봄철 폭풍이 데이튼 지역을 휩쓸고 지나간 뒤.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풍성한
은혜와 소망을 전 세계에 전합니다

교단 내 모든 교회가 드리는 여섯 개의 특별 헌금 중 하나인,
구호위원회 주일 헌금(전, 나눔의 주일)은 교단의 인도주의 구호/
개발 단체인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의 사역을 후원합니다.

이 특별 헌금은 구호위원회의 “사업 비용”을 부담합니다. 본 헌금을
통한 지원은 구호위원회에 전액 지원되어 도움이 가장 절실한
이들을 돕게 됩니다.

연합감리교회는 구호위원회와 기금을 통해 재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역은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구호위원회는 미국과 전 세계의 재난 대비, 복구/대응은
물론 피해자들의 이주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중점을 둡니다.
구호위원회에 보내는 여러분의 후원은 풍성한 은혜의 예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체크 메모난에 “구호위원회 주일”
을 적어 소속된 교회에 헌금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